



# 해외농약뉴스

## 농약메이저들 '95 1/4분기 두자리수 성장

주요메이저의 1995년도 1/4분기 농약판매액

회사명	판매금액*	'94동기대비
BASF	6,328억원	+3.2%
Bayer	6,560	+7.3
Ciba	8,168	+5.1
Cyanamid(AHP)	4,680	+31.0
DowElanco	5,080	+22.1
Monsanto	6,024	+18.6
Rhone-Poulenc	4,664	+11.9
Rhom and Haas	1,152	+10.8
Sandoz	3,856	+5.0

\* US\$ (3월 기준) × 800원

사이나미드, 다우엘랑코, 몬산토, 롬앤하스. 이들 미국계 농약회사들은 올 1/4분기중 농약판매에 있어 두 자리수의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의 하락을 기록했던 프랑스 회사인 롱프랑 역시 올 1/4분기에 12% 성장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바스프와 바이엘 두 독일계 메이저도 1/4분기에 판매성장을 보였다.

이같은 유럽 농약메이저들의 성장에는 서유럽시장의 회복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위스의 시바가이거 또한 극동지역에서 30%의 성장을 기록했다. 시바와 산도즈 양사는 북미에서는 판매수익을 올렸지만 자국내에서는 스위스프랑의 강세로 영향을 받았다.

## Delaney조항 개정안 국회제출

논란이 되고 있는 FFDCA의 Delaney조항을 개정하는데 목적을 둔, 농약업계가 지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미국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상호 모순이 있는 FIFRA(연방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와 FFDCA(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농약잔류에 대한 기준을 조

화시키고, 미미한 발암의 우려가 있는 농약에 대한 등록을 허용토록 하고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가공식품의 농약잔류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던 종전의 기준에서 극히 미미한 위해가 우려될뿐인 농약잔류는 허용하는 것으로 대체한 점이 골자. 또한 현재의 가공농산물과 비가공농산물에 따로 적용토록 2원화돼 있는 기준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농약잔류기준으로 바꾼 것도 돋보인다.

이 법안은 현재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작물보호협회와 식품가공협회는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의회가 이 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영국 농약빈병 재활용 촉진

영국농약공업협회(BAA)는 가능한 연료원으로 농약빈병을 재활용하는 시험계획을 계속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전망이 밝지만 빈병 운반비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올해부터 농약빈병은 소각하기 전에 모두 잘게 파쇄하게 된다.

BAA는 또한 가정원예용 농약빈병관리에 관한 백서를 준비중에 있다. 이를 위해 BAA는 지방정부의 폐기물처리 담당부서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처리하는데 있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를 이미 조사한 바 있다.

## 미국 라벨수정절차 간소화

미국 EPA는 아주 사소한 라벨 수정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로 줄이기로 했다. EPA 관계자는 1년에 5천건에 달하는 라벨 수정건수중 15%는 보다 능률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아주 사소한 라벨변경은 상표명을 바꾼다든지 안료나 향신료 첨가 등 성분변경같은 것들이다. 새로운 정책하에서 등록자는 여전히 최근의

변경사항을 담고있는 라벨자본을 제출해야 한다.

### 말라리아 퇴치위해 DDT 사용

방글라데시 정부당국은 말라리아를 발생시키는 모기

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DDT를 사용키로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말라리아로 인해 6주만에 사망자가 7백명을 넘어서고 발병된 사람의 수가 3만명을 넘어서자 DDT의 사용을 명령한 것.

## 각국협회 자료로 보는 '94농약판매현황

### 독일 - 침체탈출 상승세 기록

1994년에 접어들어 독일농약협회(IVA)의 회원사들의 판매액이 최근 몇년간의 침체를 벗어나 상승세를 기록했다. IVA 회장(BASF)은 지난 5월 4일 1995년도 시장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IVA 회원사들의 94년 독일 국내 농약판매액은 3.7% 증가한 약 7천억원, 수출은 1.7%늘어난 1조 5천억원대. IVA 회원사들의 세계농약시장에서의 판매액은 8% 증가한 4조6천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와 같은 농약 매출액 증가 요인중 가장 큰 요인으로 농약제품의 제형변화와 고가제품의 사용추세를 꼽고있다. 재고율도 크게 줄었고, 통독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 변화에 적응했으며, 92년 실시된 공동 농업 정책 (CAP: Common Agriculture Policy) 개혁의 영향에서 많이 회복한 덕도 보았다.

한편 양적인 면에서 보면 판매량은 주성분량으로 2.7% 감소한 21,639톤이다. 이같은 감소원인은 기

	1993	1994	증감(%)
제 초 제	12,424	12,514	+0.7
살 균 제	6,089	6,134	+0.7
살 총 제	880	946	+7.5
기 타	2,853	2,045	-28.3
계	22,246	21,639	-2.7

술적 발전, 효율의 증대, 보다 책임있는 농약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고 IVA는 밝혔다.

### 일젠틴 - 휴경으로 제조제 신장

아르헨티나 농약비료협회(CASAFE)는 1994년 아르헨티나의 농약시장은 28.4% 증가된 약4천2백억원이며 CASAFE 회원사들의 시장점유율은 87%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농약시장의 성장은 「매우 순조롭다」고 CASAFE의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콩, 옥수수, 밀, 유채류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은 농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있다. 제조제는 94년 매출액의 72%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보다 28.2% 증가했는데 이는 휴경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93~'94 아르헨티나 농약판매액(단위: 억원)

	1993	1994	증감(%)
제 초 제	2,341	3,000	+28.2
살 균 제	230	240	+4.2
살 총 제	506	701	+38.4
살 비 제	52	70	+33.8
종자처리제	38	59	+57.4
기 타	81	102	+26.7
계	3,248	4,172	+28.4

\* 판매액=출고가(US\$)×800원



### 영국 - '93 대비 강보합세

영국농약협회(BAA)는 94년도 회원사의 총 매출액은 3% 증가한 1조 6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매출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전년도 보다 0.3% 감소한 것이다. BAA회원사들의 수출은 3.3% 증가한 1조7백억원대로 전체 매출액의 66%에 해당한다.

BAA회원사들의 수출상황(단위:억원)

	1993	1994	증감(%)
제 초 제	5,900	6,200	+5.1
살 균 제	3,160	3,025	-4.3
살 총 제	963	1,063	+10.4
기 타	296	366	+23.6
계	10,319	10,654	+3.3

\* 수출금액=US\$ × 800원

### 프랑스 - 지난3년 감소세 극복

지난 3년간의 감소세를 회복함으로써 94년도 프랑스농약협회(UIPP)회원사들의 판매액은 총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액의 95%를 차지하는 UIPP 회원사들의 내수판매는 1조4천억원 규모, 수출에서도 2.1%가 증가한 약 6천3백억원대였다.

울초에도 지난 해의 성장세를 계속유지했다고 UIPP 관계자가 밝힌 가운데 현재 프랑스의 농약시장은 EU의 CAP(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영향으로 점차 안

프랑스 농약회사의 판매액(단위:억원)

	1993	1994	증감(%)
살 균 제	7,696	7,696	-0.02
살 총 제	3,808	3,504	-7.9
제 초 제	7,184	7,872	+9.5
기 타	1,712	1,752	+2.6
계	20,400	20,824	+2.1

\* 판매액=US\$ × 800원

정화되어 농약 사용량은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지난해 농약시장은 살충제는 판매가 감소했고, 살균제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제초제 판매가 늘어나 전체판매 신장에 주된 역할을 했다. 제초제의 판매신장은 EU의 비축분을 3%나 소진시켜 처음으로 재고를 바닥냈다. 특히 발아후 처리 제초제의 판매증가는 아트라진 대체약제의 변동에 힘입은 것.

한편 살충제 사용의 감소는 기후영향으로 해충발생이 부진했던 탓이며, 살균제 판매는 비록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앞으로 포도 및 곡물의 우위에 힘입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UIPP 관계자는 전망했다.

### 이태리 - 수출 힘입어 매출증대

94년도 이태리 농약시장은 수출 증대에 힘입어 매출액이 신장했다고 이태리농약협회인 Agrofarma는 밝혔다. 이태리 화폐인 리라화의 약세에 힘입어 93년 대비 수출은 7.1% 증가된 1천6백억원대, 수입은 4.4% 감소된 2억4천만원선이였다.

Agrofarma 회원사들의 국내 농약매출액은 3% 신장한 약 6천5백억원, 물량으로는 7% 감소한 11만4천2백톤이였다.

Agrofarma 회원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95%이며 비회원사를 포함한 94년 총매출액은 6천9백억원 규모였다.

'93~' 94이태리 농약판매액(단위:억원)

	1993	1994	증감(%)
제 초 제	2,280	2,530	+10.9
살 균 제	2,300	2,210	-4.0
살충제응애약	1,520	1,530	+0.5
훈 증 제	95	96	+0.5
기 타	130	157	+20.0
계	6,325	6,523	+3.0

## 메·이·저·동·향

### ● 스미토모화학 원가절감에 부심

스미토모화학 농약사업부는 앞으로 3년간 원가의 20%를 절감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해외시장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엔화의 상승으로 적정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구조 재검토가 필수적이었던 것 이에 따라 스미토모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R&D, 생산, 마케팅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현지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스미토모는 유럽, 미국, 아시아지역 자회사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대만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스미토모의 연간계획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농약생산과 판매증가도 포함되어 있다.

### ● 몬산토 식물농약 상품화 성공

미국 EPA는 콜로라도인벌레에 저항성을 가진 몬산토사의 유전자이식 감자를 농약으로 승인했다. 이는 EPA가 FIFRA 하에서 작물을 「농약」으로 승인한 최초의 사례이다.

몬산토는 *Bacillus thuringiensis var. tenebrionis* 독소를 발현할수 있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이 감자를 NewLeaf라는 상표명으로 96년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 ● 몬산토 글라이포세이트 공장 건설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글라이포세이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몬산토는 미국내 글라이포세이트 생산공장의 생산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장건설은 지난 5월 시작했으며 공장가동은 96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의 80%는 수출할 예정이다. 몬산토는 이미 벨기에와 브라질 공장의 생산규모를 2배로 늘렸으며 호주와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의 생산규모도 증설할 계획이다.

### ● 율프랑의 중국계획

율프랑은 앞으로 5년동안 중국에 5억\$ (약 4천억원)을 투자하여 미래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율프랑은 96년에 옥사디아존 계통의 수도용 제초제 입제인 RP 02063(oxadiargyl)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국의 등록을 획득한 수도용 살충제 입제인 fipronil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95년 중국에서 율프랑의 농약매출 목표는 780만\$ (약 6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94년 350만\$ (약 31억원)의 2배에 이른다. 94년 매출액이 저조한 것은 재고부족이 이유였다.

율프랑은 중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세울 계획인데 향후 농약등록, 제품개발, 판매전략 등에 관해 몇몇 중국 파트너 회사들과 협상중이다.

Fipronil은 율프랑의 아시아 팹징계획의 주품목. 이미 베트남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태국에는 올해 도입될 예정이고, 96년에 일본과 대만, 97년

에 한국에 등록할 예정이다.

### ● 아그레보 아시아 시장전략

아그레보의 아시아 전략은 수도용 제초제와 살충제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용, 원예용살충제인 실라프루오피논은 95년 6월 일본에서 수도용 살충제로 등록을 마쳤다. 벤푸리세이트, 에룩시실푸론, 아닐로포스 등을 주성분으로 한 27개의 수도용 제초제도 개발중에 있다. 아그레보의 실라프루오피논은 동남아 지역에서 최고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금액으로는 1억DM, 에룩시실푸론, 아닐로포스, 벤푸리세이트의 매출액은 각각 5천만DM이다.

### ● 케미노바 클로르피리포스 생산

덴마크 농약회사 케미노바는 97년부터 세계적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복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케미노바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8년의 기간과 22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현재 생산방법은 완벽한 상태이며 시험가동중이다. 케미노바는 최초 개발사인 다우엘랑코와 미국에서의 등록자료를 이용할수 있는 협정을 이미 맺었다. 또한 아들 양사는 EU의 등록규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유럽에서 우선 검토를 받아야할 87개 농약중에 하나. 케미노바는 이번이 개발한 제법특허가 매우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케미노바의 목표는 다우엘랑코 다음으로 제2의 클로르피리포스 생산회사가 되는 것. 케미노바는 전세계에 공급되는 클로르피리포스의 20%, 금액으로는 150억원을 목표로 하고있다.

### ● 영국 사이나미드 3종 농약 개발

영국 사이나미드 작물보호부는 감자를 비롯한 몇가지 작물에 사용할수 있는 신제품농약 3종을 향후 2-3년내에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 먼저 소개될 제품은 감자순 억제제인 PSS25인데 영국에서 곧 등록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들보다 100배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시험결과 한번 사용으로 5개월간 감자순을 억제할수 있으며 감자의 품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은 곧 유럽 전역에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진딧물약인 AC130이 2~3년내 영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AC130은 92년부터 프랑스에서 Aztec(triazamate)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감자, 콩, 사탕무 용으로도 개발중이다. 이 제품은 원래 톨앤하스가 개발하여 91년에 쉘에 판매한 것인데 쉘과 ACC가 합병되면서 사이나미드로 넘어간것. 새로운 계통인 카비릴 트리아졸계인 이 제품은 카비메이트계와 유기인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진딧물에 효과적이다.

ACH14도 위 두 약제와 비슷한 개발계획으로 진행중인 제품. 이는 발집초약인데 감자와 콩류의 광역잡초와 일년생잡초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